

2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가 말하는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책임연구자 김자영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관장

공동연구자 김경희 대구 책마실도서관 관장

김정희 호수공원작은도서관 부관장

박미애 철암도서관 관장

109	제 1장 서론
109	1절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110	2절 연구방법
110	1. 조사대상선정
111	2. 자료수집 및 분석
112	제 2장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가 말하는 활동의 성과와 향후과제
112	1절 활동의 힘은 무엇인가
112	1.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116	2. 외적인 지원이 있었는가
119	3.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120	2절 어떻게 활동을 전개했는가
120	1. 어떻게 일해 왔는가
126	2. 자신의 성장은 어떠했는가
127	3. 자원활동가들과 어떻게 성장했는가
129	4.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131	3절 현재의 고민과 한계는 무엇인가
131	1. 향후 비전에 대한 고민
132	2. 이용자의 변화
132	3. 작은도서관 대안 및 향후 비전
136	제 3장 결론
136	1. 활동의 힘은 무엇인가
136	2. 어떻게 활동했는가
137	3. 작은도서관 활동의 성과와 한계
138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140	참고문헌

제 1장 서론

1절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작은도서관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규모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보다 설립 및 접근이 용이해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있다.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가 가깝고 우리 주위 이웃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셋째, 이용자들이 도서관 활동에 쉽게 참여하기도 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나 후원 활동 등 운영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운동의 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은 세계 도서관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민간이 주도해 온 형성과정을 지니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의 전신이자 뿌리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마을문고운동, 1970년대 노동도서관, 1980년대 주민도서관운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운동은 고도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을 독서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화 및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적 수요가 높아지던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그 운동의 정신을 이어, 온 이웃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어린이독서문화공동체 공간으로서 성장한다. 이렇게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경험된 독서문화는 기적의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후 2009년에는 도서관법에 최초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정의되었고,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과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가 수립되었다. 민간에서 시작된 어린이독서문화 운동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이 공공의 어린이독서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법 제도로 공식화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이 같은 과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도서관 역사에 유래 없는 일이었다.

한국사회의 경제성장 및 시민사회 성장과 그 맥을 같이 해온 작은도서관은, 민주화과정에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했고 그 이후의 일상 독서문화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헌신적이고 신념에 가득 찬 (소수의)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져온 것이라는 점이다.

90년대 중반이후 성장을 거듭한 작은도서관은 이제 2015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에는 5595개이다. 해마다 작은도서관 수는 늘고 있으나, 여전히 상근인력 없이 운영되는 곳이 37.2%이고, 인건비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곳이 75.3%이다. 매우 낮은 보상과 처우를 받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에서는 시설이나 자료보다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과의 유대가 중요하고, 주체적인 주민의 힘이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 작은도서관 운영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응한 작은도서관 활동가중 일부는 자신의 인건비를 다시 도서관에 후원하는 등 높은 헌신성

을 보이기도 하고, 낮은 급여나 보상에도 운영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로,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가 말하는 활동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설정한다. 이제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역사는 20년이 되었고, 그 성장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활동가들로 하여금 작은도서관 활동의 힘은 무엇인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로인해 지역사회 독서문화가 어떻게 활성화되었는가, 현재의 고민과 한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절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선정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 5,595곳(문화관광부, 2015) 중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곳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운영주체가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선정기준으로 상근 인력이 있고, 인건비가 있고,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하는 곳, 전용프로그램이 있는 곳,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 사항은 해마다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를 참고하였다.

실제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전화연락과 지역협의회에 요청하여 확인하였다. 실제 운영 시 그곳에 10년 이상 일한 실무자나 운영자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중에서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공립도서관 3곳, 사립도서관 13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많은 공립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상근 인력이 11개월 계약직이거나 공익근무나 공공근로가 일하는 곳이 많았다. 한 도서관에서 10년 근무한 종사자를 찾기가 힘들었다.

조사대상인 작은도서관들의 유형과 지역은 아래 도표와 같다.

표1 선정 도서관들의 유형과 지역

유형	공립			사립			합계		
	3			13			16		

지역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인천	전라도	부산	제주도	합계
	1	5	3	2	1	2	1	1	16

인터뷰 대상도서관을 직접 찾아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기관 조사는 문헌을 참고하였다. 선정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아파트, 마을, 개인,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방법은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연구대상의 기관소개 및 신문, 자료집들을 살피고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먼저 알리고, 인터뷰 계획표를 준비하였다. 인터뷰진행과정에서는 열린 질문으로 시작해서 구체화된 질문으로 확대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문서, 녹음기, 사진기,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는 여러 가지이며 양이 많고 변화가능성이 있어, 어떤 법칙성을 찾기보다는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구조를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층면접을 진행한 도서관의 명칭을 A부터 P까지로 표기하기로 한다.

표2 선정 도서관의 지역 및 특징

도서관명	개관년도	지역	설립주체	운영주체	직원수	사서자격증
A도서관	19980217	경상남도 창원시	공립	위탁	2	2
B도서관	20050316	강원도 춘천시	사립	단체	1	0
C도서관	19891003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립	단체	4	1
D도서관	199804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립	개인	2	0
E도서관	20020604	경기도 부천시	공립	위탁	4	1
F도서관	19960501	경상남도 창원시	공립	위탁	2	2
G도서관	19980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립	개인	4	0
H도서관	20040729	전라남도 순천시	사립	아파트	1	0
I도서관	20011205	부산광역시	사립	개인	2	1
J도서관	20061229	경상남도 김해시	사립	아파트	1	1
K도서관	20051103	경기도 고양시	사립	단체	4	2
M도서관	19990326	경기도 성남시	사립	단체	2	1
L도서관	200104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립	단체	3	0
N도서관	19990129	충청북도 청주시	사립	단체	1	0
O도서관	20010630	경기도 파주시	사립	개인	2	0
P도서관	20040521	전라남도 순천시	사립	마을운영회	1	0

제 2장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가 말하는 활동의 성과와 향후과제

이번 장에서는 연구조사 결과 분석된,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들의 활동을 영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절 활동의 힘은 무엇인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활동을 이어오는 데 힘이 된 요인들을 이들의 높은 목적의식(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외적인 지원, 갖추고 있는 자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헌신성과 열의의 배경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높은 목적의식이 있었다. 즉 도서관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개인의 요구들이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강한 열의로 반영된 것이다. 그 목적의식을 어린이책문화운동에 대한 요구, 새로운 도서관 설립에 대한 요구, 좋은 도서관 모델로 인한 영향,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요구로 분류하였다.

1) 어린이 책문화운동에 대한 요구

이들이 작은도서관을 시작한 첫 번째 계기는 어린이책, 어린이문학에 대한 관심이었다. 당시 활발히 조성되던 어린이책을 공부하는 모임들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린이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주위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책을 읽히고 싶다는 요구를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구로 모아졌다. 이러한 요구로 시작된 많은 작은도서관들은 이후 어린이책문화운동에서 많은 성과를 남게 되었다.

“교육 운동하는 학부모로서 어린이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문학이 아니라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린이 언론,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활동하던 단체 내에서 동화공부를 계속했어요. 10년 넘게” (O도서관, 운영자)

“어린이책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데 그때 볼만한 데가 없더라구요. 특히 애를 데리고 가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가 컸어요. 애를 놓고 가야 도서관을 갈 수 있었으니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공간을 고민한거죠.” (L도서관, 운영자)

이처럼 그림책과 어린이문학에 관심 있던 활동가들은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개인적인 관심과 독점에 그치지 않고 공유의 공간을 고민하는 차원으로 생각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들에게 숨구멍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숨구멍이 도서관이었던거예요. 아

이들이 이 공간에 와서 쉬었으면 좋겠다. 쉼의 공간으로 도서관으로 시작한거예요. 학원이 아니라 자기가 뭘 원하는지 좀 더 고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소리 지르고 놀고 엄마 눈을 살짝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 어딘가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책 공부를 오래해오니깐 뭔가 만나고 싶더라구요. 아이들과 만나고 싶고 그래서 도서관을 시작한 거예요.” (O도서관, 운영자)

“책은 있는 놈 없는 놈 다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동네 아이들과 아파트 아이들 모두랑 같이 하려고 시작했었는데…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책을 통해서 동네아이들을 만나려고 시작했습니다.” (I도서관, 운영자)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 빈곤층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90년대 말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이 갖는 의미를 보여준다.

“설립취지는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책을 제공하고 지역여성과 주민들을 위해 활동을 주로 하는 도서관이었어요.” (M도서관, 운영자)

“OO시 전체를 다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빈곤한가’ 조사했어요. 장소를 물색해서 도서관을 시작했구요 맨 처음엔 제가 OO청년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단체를 만나서 도서관을 운영할 단체를 물색했어요. 제가 그때 고민했던 핵심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그게 나는 어린이, 책, 글쓰기여서 모아서 2,500원으로 시작했어요.” (K도서관도서관, 운영자)

당시의 어린이 책문화운동은 단순한 ‘책읽기’식의 독서운동이 아니었다. 어린이와 그들을 둘러싼 양육자, 열악한 교육문화환경이 얹혀있는 문제로 파악한 이들은 새로운 대안공간으로서의 가치를 품고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다.

2)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요구

작은도서관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은 공공도서관이 잘 갖춰져 있지 않던 시기다. 게다가 당시 도서관의 주요한 기능은 학습을 위한 독서실 기능이였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은 영유아, 어린이, 어른 등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볼 수 있게 하고자 노력했다.

“자기 책모임을 하려는 사람들이든 애들한테 보여주려는 사람들이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중앙도서관 하나 있기는 한데 신간이 있기를 해? 열람실만 운영해. 아무 공간이 없으니 시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였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간을 열 궁리를 하게 되는 거야.” (N도서관, 운영자)

“제가 할 때 만해도 허름한 지역이었던 거고 여기가 서민층 주공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도서관을 하나 만들자 이야기가 나오던 참이었어요. 바로 옆 주민 센터에 지역 몇 개의 시민단체하고 서점 사장님이 책장도 다 짜고 해가지고 처음 9.5평 공간에 도서관을 처음 만든 거예요.” (B도서관, 운영자)

“마을의 도서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미국의 도서관은 동네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사회를 생각해보면 케케묵은 책 냄새 나는 어두컴컴한 그리고 자기 책 가지고 가서 공부하거나 청소년비행의 장소로 인식되는 도서관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바꾸는 게 필요한 생각들을 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사회 도서관문화에 대해 생각했던 거 같아요.” (C도서관, 관장)

기존의 공공도서관 문화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주권운동의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운동을 펼쳐나간다.

“정보와 지식의 주권운동, 옛날 도서관기능이 특권층의 정보접근성이 있었잖아요. 뜻있는 분들이 모여 주인이 되는 시민, 정보와 지식에 대한 주인이 되어보자고 하는 주권운동으로 시작했지요.” (F도서관, 실무자)

“좋은 책을, 아무 책이나 놓지 않겠다. 누구나. (**시는 아이들에게 책 기회가 많지만 우리는 더 가난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겠다.) 엄숙 이런 거 아니고 신나게, 다함께 라는 건 운영을 얘기하는 거구요.” (K도서관도서관, 관장)

단순한 책읽기와 학습의 공간이 아닌 시민이 성장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인식하고 만들어 갔다.

3)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요구

이들 활동가들 중 일부는 한국사회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양산되는 빈민지역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것이 지역 도서관 설립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장소를 물색해서 도서관을 시작했구요. 초등학교가 없었고 아이들도 적었어요. **시 전체를 다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빈곤한가 조사했어요.” (K도서관, 관장)

“활동가들에게 많은 글을 썼었어요. 마을로 들어가라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앞서갔었지요. 근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오만한 마음이 있었겠지. 지역에 들어가서 판판히 깨쳐가면서 새로운 상을 만들고, 주민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I도서관, 운영자)

지역에서 20년이 넘게 작은도서관에 머물고 있는 활동가들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머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도 했다.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도서관이 이런단 얘기 듣고서 처음에는 저는 ‘사회진출을 위해서 1년 정도만 시간을 때울 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온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연결된 거죠. 도서관에서 활동하면서도 빈민운동 지역운동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떠나지 못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예기치 않게 진보적인 사회진출이 된 거죠.” (C도서관, 관장)

4) 좋은 도서관 모델로 인한 영향,

어린이책문화운동,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요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하는 요구 등을 바탕으로 세워진 작은도서관은 새로운 독서문화와 지역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는 도서관 활동을 꿈꾸는 후배활동가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었다.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선배활동가들이 설립한 작은도서관을 보면서 도서관 활동가로서의 꿈을 키웠고, 그것이 결국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잘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또 다른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게 하고, 좋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을 양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적의 도서관 1호가 생기고 ‘아이들이 책을 보면 좋겠다’ 생각, ‘도서관이란게 독서실개념이 아니구나’에 확 꽃혔던 것 같아요. 새롭다는 생각 때문에 봉사했지요. 도서관학교에서 교육받고 시작했죠. ... 기적의도서관 1호 생겼을 때 처음부터 봉사하면서 도서관학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6기까지 들었죠.”(P도서관, 실무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가 ##시에서 살았어요. 사회교육센터라는 마을도서관에 매일 갔었어요. 거의 매일 갔어요. 사서선생님들이 우리 애들보고 너희들 뱃속에서부터 봤다 할 정도로... 거기 사서선생님들은 모두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마을도서관에 하루도 빠짐없이 가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저도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게 되고 자원봉사도 하게 되고 그랬었어요.”(J도서관, 실무자)

이들 활동가들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자신의 경험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뱃속에 있던 아이도 자라고, 그때 그 사서선생님이 우리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뱃속에 있던 아이가 지금 자라서 도서관에 오고, 저기 누워서 책보는 아이도 매일 학교마치면 도서관에 오거든요. 저 이 일을 하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보람도 있고 저도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요.”(J도서관, 실무자)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받으러 갔다가 그림책을 알게 됐어요. 당시 구에 어린이도서관이 생겼는데, 도서관은 조용해야하니까 소리 내서 책을 읽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작은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그림책공부모임을 시작하고, 책읽어주기 자원 활동도 하면서 작은도서관 활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용자, 자원활동가, 운영위원 거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D도서관, 운영자)

“아이가 4살 후반일 때 사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서교육원을 다니면서 사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 후 졸업 후 한 달 만에 도서관에 취업하게 되었죠. 일하기 전에 책을 빌리러 갔던 시

립 도서관 사서가 너무 좋아보였어요.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다루며 사람들을 응대하고 하루 종일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러웠었는데... 작은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도서관은 결코 정적인 기관이 아니라 너무나 다이나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도서관, 실무자)

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에서 운영인력으로서 성장을 보여주는 이 같은 예시는 작은도서관의 인력이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외적인 지원이 있었는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내적인 요인으로 개인으로서의 도서관이나 어린이책문화에 대한 요구를 가지기도 했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아 도서관 활동을 시작한 경우도 많다. 외적인 지원으로는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 외 민간의 여러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 등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1)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활동

작은도서관 초기, 즉 90년대에 설립된 작은도서관들은 개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린이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한 네트워크의 힘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을 성장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회원 중에서 정예멤버들을 만드는 거 고민들을 했거든요. 잘하는 분들이니까 저도 많이 배웠죠. 정책부분에서 관하고 어떤 관계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았고요. 그래도 초창기 멤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당시에 기적의 도서관 생기면서 어린이열람실도 없었을 때 우리가 정책제안도 계속하고 이끌어 냈다는 거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 다 생겼고 기적의 도서관 다 생겼고 도서관 구조가 어린이열람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책장도 구조도 바뀌고 신발 벗고 오게 하고...그게 바로 협회에서 했던 거야. 역사예요.”(G도서관, 운영자)

“1999년 00도시를 21세기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5개영역에서 (푸른도시00 21실천 협의회 시의회, 시, 시민사회, 기업, 대학) 32개 의제를 만들었어요. 그중에 23번째 동네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 만들기 운동으로 처음 도서관을 공립화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맡기 시작해서 15년이 되었어요. 00시에 공립도서관을 만들면서 내건 조건은 사서, 장서, (상호대차), 민간 위탁 3가지의 조건이었고 절대 직영하지마라 그중 힘들었던 게 도서관에 사서를 두는 거였지요.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하니까 시에서 반대했지만 관철시켰습니다.”(E도서관 운영자)

“00작은도서관협의회는 월 1회 정기회의 꼭 하구요. 그거 아닐 경우에도 TF조직이 모일 때도 있고, 급하면 SNS나 카페에서 얘기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요. 프로그램을 혼자 기획할 수 있게 되었

어요. 시야가 넓어 지구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요.”(F도서관, 실무자)

그러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활동은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별로 다르게 전개되는 네트워크 활동에 따라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많은 고민을 낳기도 했다. 이로써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방향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000 작은도서관협회를 만들었는데, 정치적이고 해서 코드가 너무 안 맞고 가야할 방향이 안 맞아서 협회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작은도서관 사람들을 위한 인건비도 2,000만원이나 주는데 우리만 왕따죠.”(G도서관, 운영자)

“도서관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던데·하면서 편하하더라구요. 00시 작은도서관협회· 한 달에 15,000원씩 내고 있지요. 거기도 몇 번 가서 이야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가요. 시간만 뺏기고· 옛날에 했던 관행적인 일이 잦아. 선거 때는 놀러가고 그렇지요.”(J도서관, 실무자)

이렇듯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많았다.

2) 지방정부 지원

작은도서관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공립작은도서관이 아니어도,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는 작은도서관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들은 지원에 의해 도움을 받는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에 따른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00도가 다른 지역과 다른 건 작은도서관팀이 광역에 있어요. 작은도서관은 진흥해야하는 거죠. 그전에도 운영비가 나왔었고 지자체의 몫 인거예요. ㄱㅇ시같은 경우는 몇 개 도서관 뽑아서 책 지원만 하고 있어요. 00도가 도서관 팀을 만든 후 운영비를 매칭으로 시군구에서 평가하고 운영비지원을 하는 형태예요.”(K도서관, 운영자)

“00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로 도서관운영이 되고 있고요, 더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은 작은도서관, 아파트 도서관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실무자 1인의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나 도서관구입비가 조금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A도서관, 실무자)

“00시는 지원이 대개 많은 편인데 1년에 책 지원금이 한 달에 한번, 문화행사 1년에 한번 견학을 간다면 견학버스 한번, 1년에 한번 특별 문화행사 베틀장터, 기념개관행사를 하거나 특별 행사할 때 쓸 수 있는 지원금이 나와요. 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 11명을 뽑아서 줘요. 작은도서관 쪽으로 사서는 아니고요. 독서지도사자격증 거의 있으신 분들 컴퓨터자격증, 독서지도사자격증 두 개가 기본으로 돼야 거의 뽑히더라고요. 근데 한분이 연달아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오니깐 새로 관계 맺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여서 안 받을까, 차라리 안 받고 돈으로 주면 우리가 반상근 다른 사람 시키겠다고 말해요.”(B도서관, 운영자)

인력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그러한 지원에 대한 활동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작은도서관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적 지원에서 오는 문제일 것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 문화강좌로 수익을 내야해요. 시 지원금 200만원으로 제 인건비, 운영비, 책구입비 다하고, 알뜰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J도서관, 실무자)

“00시에서 교육도 많아요. 평생학습 시립도서관에는 한 달에 한번 좋은 강좌가 있죠. 중앙도서관에서 인문학강좌 콘텐츠가 많고 배울 수 있는 곳은 드물어요. 인구 28만에 혜택을 주는 것. 과부하예요. 단지 보조금 받는다고 우리한테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해요. 눈치보고 제약되는 게 많아요. 차라리 안 받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좋아서 그것만 줘도 괜찮는데 이렇게 어울려서 다니면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관도 조례를 만들고 평가제도도 들어오고 하니깐 평가 대상이 되니깐 그것에 따라 서열이 맺어지니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건데, 나를 자체를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도서관 안 되면 선생님들 간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P도서관, 실무자)

“저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 시에서도 관여안하고 아무것도 안줘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관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류작업 하는 게 부담이 있어요. 차라리 안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H도서관, 실무자)

지자체의 지원이 많다고 해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과도한 행정으로 인한 문화프로그램의 쏠림과 그로 인한 과부하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평가로 인한 부담과 지원에 따른 관리와 틀에 박힌 사업진행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시적 인력지원보다는 작은도서관의 독자적인 운영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3) 민간의 기관 단체와 협력

민간의 독서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모 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언급하며 그것이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저희 도서관의 경우 2007년에 지원받았습니다. 기기와 도서입니다. 이후 지자체 지원 사업, 문화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00의 열매에서 해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소소히 수납장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D도서관, 운영자)

“2007 희망의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있었죠. 1층 난방 화장실 고치고 그런 게 그때 들어와서 시설 개선이 되었지. 그 후로 10년이 지났네요.” (N도서관, 운영자)

“그때 만난 게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만나면서 도서관의 내용을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I도서관, 운영자)

3.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도서관계에서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을 사서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사에 응한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도 사서자격증을 갖추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들 중 3개의 공립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활동 전에 이미 사서자격증을 갖추었고 사립작은도서관 활동가들 중에서도 4명은 활동 이후에 사서자격을 갖추기도 했다. 그러나 사서자격증이 작은도서관 활동가의 필수적인 자격인지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 사서자격증

“여기 마을도서관이 생긴다고 했을 때 서류를 넣어서 채용이 되고, 사서교육원을 또 다녔었어요.”

(J도서관, 실무자)

“도서관활동이 재미있어서 저도 사서자격증을 따야 되겠다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자격증 받았어요.” (K도서관, 활동가)

심층 인터뷰에 응했던 10년 이상 활동가 16명 중 사서자격증이 있는 활동가는 7명이었다.

그러나, 사서자격증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었다. 이미 사서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들도 실제 활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거기 다니면서 확실하게 안 것도 아니예요. 아주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있지만, 큰 틀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도서관장의 역할이나 사서의 역할이나, 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나아갈 방향이나... 교수님들께 배운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배우고 와서 보면 막상 배운 것과 현실은 다르지만...” (J도서관, 실무자)

“없어요.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문제만 알아요. 목록이나 그런 거 외에 애들하고 프로그램 활동이나 독서교실 활용 거의 몰라요. 그림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도서관 활동가들은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라 훨씬 잘하지만 사서교사들은 더 많이 배운 분들이지만 실제 못해요. 그런데도 종이하나에 불과한 사서자격증하나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못 하는 거죠. 사서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배운 게 도움은 안 될거 같아요. 학문적인 것들이어서”(G도서관, 운영자)

“많은 분들이 사서자격증 따다고 했을 때 욕심이 없었어요. 사서자격증 무슨 교육을 하는지 알아봤어요. 교수가 왔는데 작은도서관하고 관계없는 것을 배우더라고요. 제가 욕심낼 것 아니구나.과 감히 잘라버렸어요.”(O도서관, 운영자)

공사립 구분 없이 작은도서관의 개소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적절한 인력 교육은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는 작은도서관 인력교육에 대한 문제로서 주목해봐야 할 지점이다.

2절 어떻게 활동을 전개했는가

1절에서 활동의 힘은 무엇이었는지를 통해, 활동가들을 주체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면, 2절에서는 작은도서관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어떻게 일해왔는가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어떻게 일해 왔는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도서관이 사람을 품어주는 곳, 다양한 세대를 만나고 지원하는 곳, 도서관 바깥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곳, 책으로 만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1) 도서관에서 사람을 품다

작은도서관 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활동가들은 작은도서관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활동 중에서 그것이 가장 즐겁다고 이야기했다.

“여기를 거쳐서 인연을 맺고 간 사람들은 수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가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삶터였고 희망이었어요. 지금도 희망이에요. 사람이 더 크죠.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일은 사람만나는 일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O도서관, 운영자)

“도서관은 권위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곳 편안한 곳, 인간관계가 좋은 곳, 배려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P도서관, 실무자)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 뭐냐고 물으면 가족이라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하나,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속속들이 아는 거 이 엄마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집에 누가 있고 자식은 어디에 살고, 다 알죠. 가족이에요.” (P도서관, 실무자)

이들은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들의 고민상담자이자 수다상대였고, 어린이들을 돌보는 역할도 한다. 마을사랑방이자 공동체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온갖 학부모들 고민을 도서관에서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풀 수 있는 게 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따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개입해서 일을 그른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책을 주는 거예요. 도서관에서는 고민을 실제 해결 하는 게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O도서관, 운영자)

“(도서관이 속한 이 빈민지역의 경우) IMF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게 가장 심각했으니까 제안한 게 시간 날 때 와서 편히 쉬고 싶음 쉬고 놀고 싶음 놀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줬음 좋겠다 생각하고

돌보기 시작했죠.”(C도서관, 관장)

“제가 일할 때부터 시작했죠. 방학 때 좋은 거 없나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할 때 하룻밤 잠자기를 해보자. 엄마들한테 너희들이 도와주면 하고 안 도와주면 안하고… 그럼 한번 해보세. 너희들이 간식 먹을 때 다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수업할 때도 도와줘야 하고 좋다 하자. 너무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도서관의 트렌드가 다른 도서관에서도 많이 하던데… 작은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여름에는 하고 겨울에는 오전에는 요리수업 피자 만들기, 김밥 만들기하고 12월에는 동지팔죽 엄마들이 찹쌀기증해서 갈아갔고 오고 애들하고 만들어가고 노인들하고 먹고 잔치죠.”(H도서관, 실무자)

이들은 공적지원이 필요한 계층-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을 돌보거나 돕기도 했는데, 사각지대의 어린이들을 돌보거나, 청소년들의 좋은 선배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도와 함께 좋은 책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위스타트센터 아이들 사각지대 아이들부터 오게 해서 독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문화를 실현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그 경계도 허물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K도서관, 운영자)

“당시 청소년이라 다양한 활동-책 읽고 토론, 연극대본도 써서 연극도 만들고, 풍물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가서 회원모집을 위해 친구맞이 잔치해서 동생도 데려오기도 하고. 대학교가서도 학생회도 하고 열심히 활동도 했죠. 사회 과학책들을 당시에 일주일에 한번 씩 읽고 했으니까 다른 애들과는 달랐겠죠. 중학교 2-3학년 때 처음 온 친구들이었으니까 일찍부터 책에 눈을 뒀죠.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면서도 후원자로 역할을 해줬죠. 형제이상 자기들끼리 친해져서 가족을 형성한 이후에도 같이 만나기도 하는 친한 관계가 됐고요. 책모임에서 자란 청년들이 20대 중후반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모임도 하고 선생님이었던 제가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돼서 공간의 사랑방의 실무자도 되고 하면서 중심이 된 거죠.”(C도서관, 관장)

“청소년들을 보면 희망이 보여요. 역으로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차올라. 저런 애들도 있는데, 책도 만들고 가고, 영상도 만들고 가. 직업 진로가 맞는 아이들이 택하더라고. 책 만들고 싶은 아이는 책을 만들고, 잡지 만들고 싶은 아이는 잡지, 영상편집 잘하는 아이들은 방송… 내가 워드 칠게요. 하면 아이들이 제가 칠게요 하죠. 스스로.”(O도서관, 운영자)

도서관이용자 중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노인이용자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노인이용자들과 함께 새로운 독서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어르신그림책학교가 밤에 열려요. 현재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그거예요. 도서관에서 하고 어르신들이 멀리서 와요. 70대 이상 토박이들. 프로그램 취지가 제주 문화를 그림책으로 담아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최초의 기획의도였어요. 자식들을 섭외해서 효도한번 하세요. 해서 자식들이

모시고 온 거예요. 어르신들이 직접은 안 오시니까 .정형화된 거 안 가르쳐 드리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삼촌만 그럴 수 있어. 저 훌륭한 선생님들은 삼촌만큼 못 그려 하고 해요. 여하튼 대단하세요. 지금은 사명감처럼 어르신들이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데 가서 여러분들하고도 해야겠단 게 사명감처럼 느껴져요.”(G도서관, 운영자)

“어르신들한테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는 게 편한 거 같아요. 이야기를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그림그리기도 힘들어하셨는데, 이제는 너무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림책은 아이들만 본다는 고정관념이 아니거든요. 힐링이 되면 위안 받고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힐링하고 좋은 거 같아요.”(P도서관, 실무자)

“여기를 못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은 여기가 천국이라 하세요. 어머니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특별하게 시골이라 하는 것은 없는데 이야기 드리고 안마해주고 사소한 이야기 같이 앉아서 하고. 글도 읽어 드리고… 아프시면 병원모시고 가야되고 매실차에서 내리면 내려드리고 차로 모시고 다니고 하지요.”(P도서관, 실무자)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작은도서관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이용을 돕기 위해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노력하고 있었다.

2) 마을과 함께 하는 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공성을 지닌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작은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아직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은 없지만 언젠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돌봄 기관, 타 작은 도서관이나 문고, 초등학교 등으로 어린이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독서문화로부터 소외된 성인, 노인, 취약계층 대상의 독서문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도서관바깥으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이용자를 확보하기도 하고, 독서문화를 마을에 전파하기도 했다.

“지역으로 들어가서 새마을문고나 농촌유치원책읽기 사업을 00도 내에서는 최초로 했죠. 반학기 정도 찾아가서 책임어주기 하고 매주 저녁 아이들과 프로그램 운영하고 끝날 때는 마을축제까지 하고 나왔는데 하고났더니 우리보다 더 커지고 활성화되더라고요.” (G도서관, 운영자)

“쉬는 날 오후에 찾아가서 할머니 만나서 책임어드리고 건강 체조, 레크리에이션하면 정말 좋아하세요. 다음에 오면 좋겠다고 해서 보람을 느끼죠.” (P도서관, 실무자)

“요즘 들어 시장에 책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핑계로 안 받던 분들이 지금은 4년째하고 있어요. 지금은 바쁘시니까 시를 적어서드리고 대활자 책도 빌려드려요.”(M도서관, 운영자)

“도서관이 먹자골목 안에 위치해있는데 주변의 가게들을 선정, 책 읽는 가게로 선정해서 책도 나눠 읽고, 북콘서트도 했습니다. 바로 이웃에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D도서관, 운영자)

이 같은 활동은 다문화 혹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활동으로도 확대된다. 이용자를 잘 파악한 활동가를 통해 기획,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 온 말이 없는 아이가 있는데… 할머니도 오세요. 할머니도 중국말만 하시는데… 차를 한 잔 드리면 중국말로 뭐라고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인 것 같고 다 되더라고요.” (J도서관, 실무자)

“저희가 지금 하나교육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만의 특화된 일들을 열심히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J도서관, 실무자)

3) 독서문화활동을 통해 주민을 만나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도서관 본연의 역할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 주민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읽는 행위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마을로도 확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우선 본인이 먼저 책을 즐기고 있다고 했다. 스스로가 즐거워서 읽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책을 추천하기 위해 스스로 책을 보는 눈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하여튼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지요. 요즘은 담론을 읽고 있어요. 여러 권의 책을 들고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간추천을 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J도서관, 실무자)

“학생운동부터 시민운동까지 하던 과정 속에서 책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고, 공부했지요. 책을 참 좋아했지요. 나쁜 책을 골라낼 줄은 알아요.” (I도서관, 운영자)

“도서관에서 중심은 책이겠죠. 책은 밑바탕으로 읽어야 하고 지식을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책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토론 한다면, 한권의 책을 선택해서 이야기하고 애들도 나는 와서 이 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좋더라고요.” (I도서관, 실무자)

“제가 10년 전에 할 때 할 게 별로 없으니깐, 아는 게 없으니깐 책읽기모임을 하고 계속 책을 읽었어요. 책 읽은 것으로 서평 비슷한 것을 글을 썼고 그렇게 하니깐 아는 책이 많아지니깐, 내가 재미있으니깐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작은 도서관이라도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책을 알게 되잖아요.” (B도서관, 운영자)

10년 이상 도서관 활동가들은 도서관의 책을 이용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단순한 대출반납 업무가 아닌, 이용자를 파악하고 책을 통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관계예요. 책 또한 저자와 독자가 관계를 맺는 시간이자 공간이 된다. 사람들은 도서관에 와서 읽을 만한 책을 찾고, 실무자는 그런 책들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 수고를 해요. 책이 아무리 구비되어 있어도 사람과 책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죠. 필요로 할 때 재빨리,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갈망하는 것을 그것과 관계된 여러 가지 것으로 안내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A도서관, 실무자)

작은도서관은 이용자와 운영자들의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책을 잘 읽고 즐기는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책을 전파하기가 수월하고, 함께 즐기며 읽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독서동아리가 결성되기도 하는데, 독서동아리는 작은도서관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계속 오던 어린이집원장님과 친한 사이여서 학부모님들로 조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월요일 한 팀 금요일 한 팀 된 거예요. 그림책동아리가 두 꾸준히 해오는 동아리이고 초창기부터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K도서관, 활동가)

“지금하고 있는 그림책모임은 동아리형태였다가 사람이 오래 못가는 것 같아서 동화읽는모임 대표님한테 8회차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자생적으로 서로 친해지면 모임으로 가져간거죠. 저녁에 엄마들 여성글쓰기 올라잇 그 모임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스터디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인프라를 채워 주는 게 도서관 자원이 있어서 가능해요. 영유아자녀를 둔 엄마들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체계가 되었고 기존에 있던 책마중이라는 어른책동아리는 역사를 같이 하죠. 생애주기별로 책으로 매개하는 책모임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B도서관, 운영자)

“그림책 읽는 엄마들 모임이 2015년 이 공간에 와서 한 건데요. 그때는 제가 상근도 하고 있었고, 제가 모임을 한 일 년 반 정도 했었죠. 올해는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나와서 불안감이 있었죠. 에너지가 드는 게 그림책 모임인데, 엄마들이 어떻게 모임을 잘할까 걱정이 됐었는데 정작 제가 빠지자 멤버들이 더 많이 늘고 그중에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 지금 대표가 되어 되게 열심히 해요.” (C도서관, 관장)

독서동아리가 결성된 작은도서관들은 운영자와 동아리 및 자원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서가 구성, 도서전시, 책읽어주기, 북스타트 등의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펼치게 된다.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활동은 책 읽는 즐거움을 전파하고 많은 독자를 늘리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

“도서관에서는 영유아, 아동들을 위한 북스타트활동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형극반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되었어요. 책을 통해서 책과 이용자가 만나게 하려고, 잘 하려고 변화가 이루어졌지요. 도서관중심성이 생겼지요. 도서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요.” (I도서관, 운영자)

“무엇을 하느냐도 다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을 비우고 책을 보이게 하자 주제가 있다면 주제 컬렉션을 해서 책꽂이 하나하나를 의미 있는 책꽂이로 만들자.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하나의 주제가 엮어 있는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 목록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시장이자 책꽂이,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죠.” (N도서관, 운영자)

작은도서관의 경우, 특징상 영유아, 어린이, 그들의 양육자가 주이용자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장해가면서 독자였던 그들이 비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펼치는 경우도 많았다.

“도서관을 찾는 대부분 아이들은 비독자에서 독자가 됐죠. 책임어주는 방법 엄마들과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강제로 읽히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책의 가치를 성적이 아닌 것으로... 한 달에 한번 청소년들이 와서 책 읽어주고, 방학동안 책임어주고 있어요. 책임어주는 일상적으로 하자. 될 수 있는 데로 하루에 한 두 권이라도 아이들과 눈 마주치고 책임어주는 하자. 아무리 바빠도...”(K도서관 운영자)

“00구는 북스타트를 가장 오래한 지역입니다. 개관이후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인 책아 나랑 친구 하자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신간평가단 등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시민강좌 등 일반 시민강좌 등을 엽니다. 연령별 스펙트럼을 넓게 두고, 도움을 드리려 하고 있어요. 독서동아리에게 자극도 주고, 더 깊이 있는 책임기, 시민의식을 갖춘 책임기를 하게 하기 위한 강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D 도서관, 운영자)

각자 도서관에서 책문화활동을 만들어가던 작은도서관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책문화 잔치 등 더 큰 규모의 독서문화축제 등을 기획, 운영하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역사가 쌓여서 지역에 알려진 책문화행사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도서관을 알리는 데도 좋고 책임기의 즐거움을 주민들에게 폭넓게 알리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바깥놀이터 도서관은 몇 년 동안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책수레 싣고 나가서 책임어주기 했었고, 제가 시작하기는 했지만 장애인친구들과 놀이를 통한 책임어주기, 주간보호센터 성인친구들이랑 같이 책 읽고 놀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K도서관, 활동가)

“가을동화잔치를 했어요. 우리끼리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나무숲속 그림책, 행진하고 와서 놀고 분장하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공원에서 놀고 재미있었어요. 여러 단체 모임 포함해서 열 개 단체가 모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집에서 노는 방식을 마당에서 같이 노는 거지. 억압된 책임기가 아니라 뭔가를 이뤄내야 하는 책임기가 아니라 풀어내는 책임기를 실현하는 느낌이 들어서 통쾌했어요. 우리의 색깔을 잘 내는 가을동화잔치 같은 독특한 자기색깔을 내는 행사였죠.”(N도서관, 운영자)

“작은 문화로 자주 시도 해보면 우리 안에 하는 것보다 밖으로 들고나가서 펼쳐보는 것도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경험이었어요. 책문화활동가들이 우리 도서관 안에서는 작은 극장을 주도했었어요. 인형극이나 그림자극, 그림자극 만들어 순회공연도 다니고 협동조합도 만들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하지만, 콘텐츠는 축적되죠.”(N도서관, 운영자)

“프로젝트를 하나씩 할 때마다 다 늘 좋았던 거 같아요. 특히나 지역에 가서 문고사람들 만나고 마을에서 만나서 1년 한 7-8개월하고 우리가 다 기획하고 잔치처럼 펼칠 때 엄청난 성취가 와요. 기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프로그램 넣고 다른 어떤 책 축제보다 잘 기획되고 성취가 있었죠.”(G도서관, 운영자)

독서문화활동을 통해 주민을 만나고 자신이 경험한 함께 하는 책임기, 즐거운 책임기를 나누는

활동가들은 이용자, 도서관과 함께 스스로 해냈다는 높은 성취감을 얻었다고 한다.

2. 자신의 성장은 어떠했는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끊임없이 이용자와 만나고 소통하고 관계 맺고 가족같이 가깝게 어울리는 과정을 보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새롭게 내면이 성장하기도 하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한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급여나 다른 보상보다는 스스로 즐기며 열정적으로 활동한 시간들을 보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으로서의 일이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찰과 내면 성장의 과정은 또다시 작은도서관 운영의 성과로 연결되기도 했다.

“도서관 처음 할 때 내가 대중적이지 않구나, 내가 민중을 말하고 시민운동을 말했지만 내 삶과 내 태도 내 언어 속에 내가 대중을 모르는구나 하는 자각이 좀 있었어요, 그 뒤로 제가 도서관을 하면서 느낀 건 이 공간은 내가 싫어하던 좋아하던 세계관이 같던 같지 않던 누구나 오는구나.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인데 누구나 오는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죠.”(L도서관, 운영자)

“내가 가장 크게 고마워하는 건 사람이고요.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힘. 이 시간의 축적들이 나의 기획력이나 판단력으로 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래할 수 있었던 힘도 사람에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마다 성격도 그릇도 다르고 서로에 대한 시각도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었던 거 같아요.”(L도서관, 운영자)

작은도서관 공간에 대한 자각은 작은도서관 활동에 사명감을 더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적 활동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진보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1세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는 많이 달라요. 당시의 선배들은 희생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을 다 작은도서관에 바친 거죠. 그런데 나는 내 아이 책 읽혀 주려고 했던 거여서 시작점이 다르죠. 그렇게까지 십자가 진 희생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긴 너무 소중한 공간이니까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D도서관, 운영자)

“책과 사람과의 관계를 늘 일상적으로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나 스스로가 먼저 책을 통해 공부하는 사람, 독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A도서관, 실무자)

“관장이 되고 대표가 돼서 좋은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그림책학교도 그렇고 청소년토론모임도 다른 공간에서 십여 년 됐는데 도서관으로 와서 같이하게 되고. 그런걸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G도서관, 운영자)

“작은도서관은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뭔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조절이 되면서 저도 이제 저 혼자 있다면 그게 힘들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있고 하니깐 서로 조절해가면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어서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K도서관, 활동가)

“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개인의 영역인데 그걸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 오는 보람이 컸어요. 요즘은 모든 면에서 사적영역이 강화되는데 개인영역을 공공화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은데 그런 장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D도서관, 운영자)

3. 자원활동가들과 어떻게 성장했는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책을 통해 이용자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의 역할을 했고, 사랑을 보듬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친분과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책정보를 서비스하는 관계를 넘어서, 함께 책을 읽으며 현실에 눈뜨기도 하고, 자신의 할 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조언자나 선배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자원활동가들은 책을 읽어주는 일에서부터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자가 되기도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관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과 자원활동가들의 관계는 함께 도서관을 운영하며 성장하는 좋은 이웃이었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살림에만 매진하던 많은 어머니 이용자들이 마을활동가로, 독서문화 일꾼으로, 주체적인 여성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힘든 점도 많고 이용자와 차이도 많지만 그래도 보람 있어요. 저희도서관에는 자원봉사선생님들도 있고, 수요일마다 매주 책보수동아리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사이 유대관계도 좋고, 도서관이 성장하잖아요.” (J도서관, 실무자)

“자원 봉사하는 선생님들 매일매일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눈여겨보지요. 이사를 오면 맨 먼저 도서관에 오시잖아요. 매일 오시는 분들 눈여겨보고 공을 많이 들여서 관계를 만들었어요.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하지만 저도 그 분들을 가장 잘 챙기려고 하고 또 쌤들도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J도서관, 실무자)

“‘예전처럼 ‘자원활동 해 주세요.’ 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여기서 자원활동 하고 싶은데요. 뜸들이고 싶어요. 그럼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꼭 저희가 적어놨다가 자원활동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명단을 한명, 한명 하고 있고 올해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림책공부를 시작 했어요.” (O도서관, 운영자)

활동가들은 사람을 조직하고,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산시켜나가는데도 노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도서관 일꾼의 성장 발전 과정을 밟아간 것임이 분명하다.

“자원활동가모임을 확산시켜나갔죠. 여기서 인형극 배워서 다른 곳에 가시기도 하고, 인형 만들어서 전시해놓은 것도 책 속 주인공을 끄집어내어 독서문화프로그램 다른 곳에서 많이 하죠.” (K도서관, 활동가)

“동아리가 9개 정도 있어요. 그냥 내 아이 좋은 책 읽히려고 왔던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이 생

기는 거죠. 작은도서관은 사람들이 크는 곳이구나. 사람들의 성장 변화 그런 것을 봤어요.”(D도서관, 운영자)

“문화학교라기보다 우리가 기획팀을 만든 게 있었어요. N도서관 책문화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책문화활동가 조직을 해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2년에 한 번 열릴 때에 2010년에 공예가 있는 어린이도서관 공간구성을 한 적이 있어. 청주가 공예라는 트렌드가 있으니깐 비엔날레를 하면 심터 겸 책공간 겸 이야기로 활동했어요. 제일 귀한 활동가들은 책 읽어주는 이야기 선생님, 아무나 할 수 없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하다보면 아무나가 아닌 게 돼. 처음에는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내공이 쌓이면 지금 청강장애인학교 성심학교에 가서 책읽어주고 중증장애인복지관 데이케어 센터 가서 책읽어주죠. 보람 있어요.”(N도서관, 운영자)

“주로 90년대 여성들이 교육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을 때 여성들을 위한 교육공간을 만들어 여성대학을 운영했어요. 여성들에게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 맺고 지역의 활동가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했어요. 여성의 성장을 적극지원 했고 성남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M도서관, 운영자)

“저희도서관의 성과는 성장인거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표현하는 말을 만들 때, 우리가 ‘아이가 자라고 엄마가 성장하는…’이라고 했는데 아이들 자라는 건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만 어른이 돼서 성장하는 건 계속 교육되고 훈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공간을 찾아온다는 사람들의 중산층 의식, 골라 먹여주고 싶은 욕구를 가진 자의 욕심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활동가가 되는 과정, 감동적인 걸 많이 봤죠.”(L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시고 강사를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웬만하면 독서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 마을 선생님이 하고 다른 거는 외부 초빙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샘들이랑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죠.”(F도서관, 실무자)

도서관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은 작은도서관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의 선생님이 되고, 지역의 독서문화기획자가 되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이러한 지역의 독서문화활동가들을 양성한 것은 작은도서관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책을 중심으로 활동들을 하지요. 여전히 그분들은 친정집 오듯이 오나가나 들리지요. 여기서 성장했던 분들이 나가서 외부에서 활동가로 많이 하고 있지요. 역사공부 하셨던 분은 센터를 지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도서관을 플랫폼이라고 하지요. 아이들과 모임 하시던 분들은 교사활동을 하고요. 굳이 여기서 하지 않더라도 배워서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I도서관, 운영자)

“‘우리가 정말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건 교육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 기본교육 강좌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엄마대상으로 했어요. 한번은 인문학, 한번은 책 이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강사를 모시기도 하고 교육커리큘럼이 되게 좋아요. 그걸 쉬지 않고 한 게 잘한 거죠. 책놀이활동가들은 20회차 40시간을 의무로 들어야 활동가가 되거든요. 1년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아, 초등저, 초등고학년엄마랑 요구가 다른걸 알게 됐어요. 첫아이 나이로 소모임

을 만들기 시작해요. 소모임 대표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죠.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거죠. 우리 구조를 소모임 대표들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한 해에 한 소모임씩 늘려가자 한거죠.” (L도서관 운영자)

“저희는 프로젝트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각자 소모임 별로 사업을 계획한 걸 들어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파악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프로젝트란 건 공익기금을 가져오는 거니까 CD를 만들면 문화전파...라든가 아니면 서울 지도를 만들어서 서울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프로젝트 기금으로 하고 싶으면 그런 공유하는 공익적 사업이 이뤄지게. 우리도 누리지만 이 결과를 공급할 수 있을 때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는 거죠.” (L 도서관 운영자)

4.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친근하고 편안한 사랑방 공동체 역할을 해왔던 작은도서관들은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웃을 품어주고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공동체 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도서관에서 자란 어린이 이용자들은 이후에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 다시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오래된 작은도서관들은 각자 저마다의 역사를 이뤄가고, 10년 20년의 시간들은 도서관의 역사이자, 이웃 주민 각자의 성장 과정이기도 했다.

“우리도서관은 정말 정이 많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마음, 도서관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H도서관, 실무자)

“애들이 처음에는 도서관오기 싫어서 와서 울고 지금은 활달해가지고 감사하죠. 그런 것 볼 때 마다 정말 내가 도서관하니 젊은 엄마들도 만나고 관계도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신랑 하는 말이 선생님 만나고 우리 각시가 달라졌어요.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었어요.”(H도서관, 실무자)

“지난 번에 말썽부리던 녀석이 엄마랑 같이 찾아 온 거예요. 자기가 처음 운전을 따서 나를 찾아오고 싶었더라요. 한 달 있다가 애인 데리고 왔어요. 여기 있기를 잘했다. 참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힘이 되요.” (O도서관 운영자)

“이 아이가 이렇게 커 있구나. 자원활동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던 사람이 이사를 가잖아요. 앨범을 만들어줬어요. 젓 물고 왔던 아이가 유치원 가게 되면 떠나게 되요. 선물을 줬어요. 그렇게 준 사람이 몇 명이 되요. 지금도 앨범 해주던 게 생각나요, 글도 쓰고 낮잠 잤던 사진이 앨범 잘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펼쳐보듯 그 친구들도 아마 멀리서라도 펼쳐보겠죠.” (O도서관 운영자)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아기를 가져서 왔다가 그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까지 이용하시고, 중학교 말썽꾸러기 애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다시 찾아 오는 데에서 오는 희열, 특히 동아리 엄마들이 초등학교때 말썽부리던 아이가 중학생으로 성장하면서 학교 도서관에서 취하는 행동을 보았는데 다르더라. 점차 조용해지고 책도 보고 도서관활동도 하니까 달라지는 모습

이다. 어릴 때 요기서 도서관서 놀던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도서관자원봉사를 오는데 그 모습은 공공의 큰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인거라 작은도서관만의 매력이 이거지요. 그것이 역사지요.” (F도서관, 실무자)

이웃 간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나간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앞선 순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 활동가들로 성장해 나가기도 했다. 이 마을 활동 또한 개인의 커리어를 쌓는 과정으로 그치지 않고 공공성을 지닌 활동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예를 우리는 찾을 수 있었다. 그 예로 두 도서관의 경우, 자신의 도서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안에서의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를 염두에 둔 공공의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소모임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회비로 하면 되는데 작가를 모시고 싶다던가. 그런 걸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면 엄마들이 지역주민에게 배포할 뭘 할 건가를 같이 생각하는 거죠. 목록을 만든다면 단순 목록이 아니라 서울숲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도감이 된 거고, 서울숲 지도를 수건으로 만든 거죠. 아이들이 도감의 작가도 되고 중2병도 넘기고 서울숲은 도감과 지도를 갖게 되는 거죠. 청소년 서울숲 사업했던 엄마가 서울숲 운영주체가 되었어요. 지역 활동가로 성장한 거죠. 여기서 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개네들이 우리가 여름캠프할 때 선생님이 와서 활동한다거나 도서관에 선생님이 돼서 오는 애들이 큰 걸 보게 되고 우리 엄마들이 00공방을 만들었던 과정도 저한테는 좋았죠. 이 공간에서 일가를 이뤘던 엄마들이 다시 마을의 선생님, 마을의 아이들을 키우는 공간이 되는.. 그래서 책놀이 창작소를 만든 거죠. 내가 아이를 키웠던 품앗이나 책놀이 활동을 가지고 단순히 책수업이 아니라 책문화를 공유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선생님이 되는 거죠.” (L도서관, 운영자)

“우리지역에서 0000도서관에서 활동했다고 하면 실력이 높은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다른 작은도서관, 아파트도서관 실무자를 뽑을 때 우리 경력을 가져가면 채용될 확률이 높대요. 다른 도서관 실무자로 간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우리가 네트워크가 잘된 이유가 있어. 우리식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인력의 노하우를 치면 네트워크에 뿌리를 찾아보면 어딘가에서 연결이 되어있어요.” (N 도서관, 운영자)

3절 현재의 고민과 한계는 무엇인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10년 이상 운영하며 활동해 왔지만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고민은 깊었다. 너무나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전국에서 끊임없이 설립되고 있지만 재정 등 운영의 안정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등에서 부족한 공간이 많이 보인다. 또한 도서관을 찾아오던 이용자들도 어린이 인구 감소, 지역의 작은 변화, 독서인구 감소, 이용자의 새로운 경향 등 감내해야할 변화 또한 많았다. 앞으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작은도서관으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발전해 가야할 것인가.

1. 향후 비전에 대한 고민

오랜 헌신의 시간을 보낸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후계구도는 어떻게 세워야하는지, 현재의 불안정한 재정 및 공간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성과가 많은 도서관일수록 고민은 깊었다.

“자꾸만 고민 되는 게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하나? 10년 동안 있으면서, 아니 12년 되는데 이사 가 버릴까, 도서관 그만둘까, 처음에는 보람도 느끼고 좋고, 지금은 내가 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H도서관, 운영자)

“관장을 제가 계속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사람이 2년에 한 번 꼴로 바뀌면서 하는 게... 다행히 할 만 한 제 또래가 몇 명 있어요.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혼자 오래 하다 보니 일이나 찾아서 하는 편이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호응이 있으면 추진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같이 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B도서관, 운영자)

인터뷰에 응했던 도서관들의 다수는 민간 사립 도서관으로 운영을 위한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인력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갈 작은도서관의 인력을 찾고, 키워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다.

“다음세대를 못 만든 게 실패라고 봐요. 30대는 들어왔다 다 나가고 다 바쁘고 지역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다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동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다음세대를 만들지 못한 거,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안했던 게 문제였던 거 같아요.” (K도서관, 관장)

“개인영역이 확대되는 요즘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을 유지해야겠죠. 그러다보니 유지에 관한 사명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아리 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기반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가들이 팀장이 되어서 도서관을 이끄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키우고 공간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D도서관, 운영자)

하지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한해에 3,300정도 될 거 같아요. (많은거예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최소한의 활동비로 계산해도 한해에 6,500정도는 들더라고요. (공간이 넓어서 임대료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최소 2,500정도 손실이 나는 걸 3년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래도록 비용이 들 거구요. 이런 손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서관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죠. 적어도 내년 초중반 전에는 꼭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생존이 향후 과제구요.”(C도서관, 관장)

2. 이용자의 변화

현재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가장 두렵게 체감되는 것은 이용행태의 변화이다. 어린이 이용자의 감소, 독서인구의 감소, 공동체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개인주의등 기존의 작은도서관 운영방식에서는 조금 낯선 새로운 이용층의 등장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어떻게 변화하고 함께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아이들이 찾지 않는 도서관이 되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도서관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재정문제야 어느 도서관이야 다 겪는 것이고 이걸(도서관을) 하기 위해 다른 사업까지 하는 마당에…”(I도서관, 운영자)

“아이들이 자라서 연령대가 높아지고 어린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도 오늘 책 읽고 미술 한다하면 막 와요. 지금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학원 다녀요. 방과 후 수업이 학교에 있죠. 문화센터라는게 자치센터가 있으니 분산이 되어 있죠.”(J도서관, 실무자)

“우리사회가 예전에는 정서적 교감이 워낙 강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하기 쉬웠던 거 같은데 요즘은 확실히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걸 예전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온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는데, 물론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따뜻하게 대해야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넓어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C도서관, 관장)

3. 작은도서관 대안 및 향후 비전

작은도서관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이 시기, 이제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새로운 시기의 작은도서관의 비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를 위해 도서관 본연의 일-책관련 활동에 충실할 것, 특화를 통한 장서와 콘텐츠의 집중화를 대안으로 고심하고 있다.

“자료가 중심이고 싶으나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프로그램이 더 중심이 돼버리는 거 같아요. 요즘 추세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이나마 위안 삼는

건 그래도 문화센터같은 도서관은 되지 말자는 게 스스로의 생각이예요.”(F도서관, 실무자)

“기본적으로 스터디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인프라를 채워 주는 게 도서관 자원이 있어서 가능해요. 영유아자녀를 둔 엄마들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책모임을 하는 거구요. 생애주기별로 책으로 매개하는 책모임을 많이 만들려고요 해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곳이 마을센터 안에서 도서관 같아요. 여성정책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이 끝나면 마을연구모임을 따로 만들어요. 커리를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을공동체 책이 많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책을 따로 서가를 배치 할 거예요. 모임하고 주제도서하고 이어지게끔 하려고요.”(B도서관, 운영자)

장서와 자료에 대한 집중은 전문성을 갖춘 작은도서관으로서 특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존재감을 높이고 사명감을 부여받고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특화도서관, 지금은 많지 않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특화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다른 모델을 꿈꾸는 도서관에서 견학이 많이 오거든요. 어찌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희망적인 것은 견학이 많이 늘어나고 제노사이드가 특수해서 인문학으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희망적인 것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거. 3년이잖아요. 점차 알려져서 아이들하고 제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정도로 바쁠 정도로... 어른들이 광주에서 부산에서 여기로 와요. 희망이 몰려와요.”(O도서관, 운영자)

“큰 도서관이 생기니 굳이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좀 전문화된 도서관을 만들자 여성이나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보자. 여성학 책도 00대도서관 말고 우리가 쓸 만한 책들이 거의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의식적으로 작년부터 모으고 있거든요.”(B도서관, 운영자)

“특화하게 된 것은 전환은 아니고 하다보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쌓이더라고요. 사람이 되었던 콘텐츠가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뭐가 이것저것 하다보다 그런 것이 쌓이는데 그 사람들과 그 기반으로 다음 것을 하게 된 때가 온 거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센터역할 좀 해라 본인 도서관 역할만 할 때는 지났다. 우리가 묶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했던 것을 잘 정리해서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그것을 특화라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그런 특화 네트워크의 중심, 거점특화를 하려고해요. 잘 설명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 보완하고 체계를 만들어서 잘 전수 했으면 좋겠고, 그럴만한 노하우를 가진 그룹이나 활동가들 역할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지. 콘텐츠는 갖고 있는 거야. 특화사업으로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면 잘 짜서 이 안에서 아카데미를 해야겠다.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로. 다른 도서관 사람들이 와서 배워서 자기 도서관에서 하고 또 다른 지역 팀을 만들거나 영역마다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지. 복컬렉션을 하려면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일 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 같이 가야겠다. 지역하고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N도서관, 운영자)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을까?’는 모든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고민이

다. 생존을 늘 염려하고 대안을 세우면서 또 현재의 운영을 해내야 하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늘 어깨가 무겁지만, 미래를 위해 고민을 이어간다. 활동가들은 그 고민의 지점을 ‘내 도서관’만의 생존이 아니라 모든 작은도서관이 함께 생존하고 성장해 가는 것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민들레 홀씨 되어 이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널리 퍼지고 확산되는 것으로 도서관의 비전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해요. 우리여야 한다거나 이곳이어야만 한다기보다, 우리가 드러나는 거보다 흩어져서 많아지면 그것이 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OOO도서관이 드러나는 것은 아무 큰 의미가 없다. 전체적인 독서환경, 작은도서관의 사람들이 의미 있게 자리하는 것을 위해서 사실 꽤 노력했는데, 이게 우리를 위해 노력한 거라기보다는 그것이 또 우리의 비전이기도 한거죠. 다른 도서관이 잘 되는 것이 OOO도서관의 비전입니다.” (N도서관, 운영자)

심층인터뷰에 응한 사립작은도서관 활동가의 경우, 사립작은도서관의 생존에 대해 스스로의 힘으로 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또 다른 활동가는 이제 작은도서관은 공공의 영역에서 말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사립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생존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 보이는 지점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가야한다. 공모사업은 하되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내려놓자. 운영비지원이 없어도 더 자유로워 진거예요. 일단은 많이 없어 진거예요.” (K도서관, 관장)

“노동도서관과 주민도서관의 필요가 시대적 소명이었다면 지금은 공공의 영역에서 작은도서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 주체가 민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 정책이 잘 되게끔 하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일 같아요. 실험성, 독특함, 차별성 독립성 이런 게 없는데 작은도서관을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한 실험과 공공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걸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면 민간으로 운영되면서 기능도 특성도 없고 열악한데 그런 걸 생존시킨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L도서관, 운영자)

그들은 작은도서관의 비전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통되게는 각자 도서관만의 특징을 갖는 것, 공공성을 키워내는 것,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독서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을 제시하여, 작은도서관이 공공의 독서문화를 이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도서관을 계속 하려면 그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세대를 키워야 되죠.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 다음의 세대, 커오는 사람들을 묶어내고 하는 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할 역할이죠. 이제는 작은도서관들이 워낙에 많이 생겼잖아요. 저는 도서관의 독자성을 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기 도서관을 가면 그만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간도서관들은 관장이든지 대표든지 누구든지 간에 선생님들과 같이 개인소유물이 아니란 걸 심어줘야 할 거 같아요. ‘같이 하는 거다.’ 공공의 개념이고 모두 같이 나누는 거다. 그런 개념으로 하면 많이들 참여하게 되죠.”(G도서관, 운영자)

“책을 읽고 함께 하는 경험치를 주는 게 참 중요한데 사실 민간사립이 이런 걸 해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적 공간 안에서 이런 게 이뤄진다는 게 참 중요한데 공공에서는 잘 안되시는 건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과나 수치적인 그런 거 없이 소소하게 길게 모임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독서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게 공간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D도서관, 운영자)

“21년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도서관을 꿈꾸고 있어요. 96년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의 역사를 아카이브해서 자료로 만들고 있어요. 그 자료가 자료로 남기보다 그게 활동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운동의 공간으로 노동운동의 공간으로 보존해야할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아이들에게 지역주민에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도 같이 하면 좋겠다하는 게 꿈이에요.”(M도서관, 운영자)

그래서 그들은 지역을 함께 공부하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도서관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공부해야합니다. 가와사키에 교류가 있을 때 사서를 보냈는데 거기서 쓰나미 올 때 작은도서관들이 재난시 게시판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도서관이 이제는 책이 다가 아니다. 도서관은 마을 속 도서관이다. 마을의 한 부분이고 공간이고 주인이잖아요.”(F도서관, 관장)

제 3장 결론

우리의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활동의 힘은 무엇인가

낮은 보상과 높은 헌신성을 특징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보인 작은도서관 활동에 대한 강한 열의와 목적의식은 어린이책문화운동에 대한 열의, (설립 당시) 권위적이고 딱딱한 공공도서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서관을 향한 열망,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정부의 지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한 다거나, 평가의 부담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또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민간단체의 지원은 2000년대 초반기의 한 독서관련 단체의 공간지원사업이 작은도서관 출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활동의 힘은 개인적 목적의식과 민간단체의 도서관 공간지원사업이 긍정적 역할을 한 반면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있었다.

또 다른 힘인 사서자격증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사서자격증 취득과정에서 학습된 것과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정은 달랐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해서, 사서자격증의 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어떻게 활동했는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유형과 지역에 관계없이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람을 만나고 서로 품어주고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과정을 중시했고, 실제 사람 관계를 일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꼽는 활동가들이 많았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나 세대를 돌보거나 품어내는 역할을 통해 21세기 한국사회의 따뜻한 마을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도서관 본연의 일이라고 스스로 꼽는 책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가들 스스로가 책을 즐기고 책보는 눈을 갖는 가지고자 했다. 이들의 책 관련 활동과 사랑방의 맏언니 같은 친근하고 편안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여성 자원활동가들을 양성 했고 독서동아리 양성, 책임어주기와 책놀이 활동, 책관련 행사 등 독서문화활동을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도서관 바깥의 지역에도 전파하는 역할까지 해내면서, 작은 사랑방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활동가들이 마을 독서활동가들로 성장한 것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오랜 이웃 간의 관계가 이어져온 것 또한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내야 하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오랜 운

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공간의 불안정성 외에도 독서문화의 쇠퇴와 이용자의 새로운 이용
행태와 늘어가는 도서관들의 수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을 고민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들은 당
장의 활성화보다 오랜 비전을 갖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개별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그치지 않는 공공의 도서관 활동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것-지역네트
워크의 활성화, 독서문화의 정착, 활동의 공공성의 강화-를 꼽았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각 도서
관만의 고유한 장서와 서비스를 갖는 특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3. 작은도서관 활동의 성과와 한계

작은도서관 운동이 이룬 성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00년대 초반기의 어린이독서문화 공간 조성과 어린이 독서문화활동 콘텐츠를 선도적
으로 만들어내고 전파했다.

둘째, 공공도서관에서 하기 어려운 이용자들과의 대면 접촉과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다가감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으로부터 독서문화를 활성화시켰다. 비록 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속도가 느리지만 지속적이며 단단하게 파급력을 발휘했기에 그간의 어린
이책 독서와 출판의 호황으로 이어졌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작지만 역동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많은 독서활동가들을 양성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들 독서활동가들은 학교, 보육기관, 마을활동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성
장했으며, 후배 작은도서관 활동가들로 성장해 2000년대 이후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에도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해온 다양한 계층에 대한 돌봄과 지원 활동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된 우리 사회에 사라져가던 공동체를 지키고 이웃 간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다섯째, 평생교육, 주민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시민교육,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도서
관 본연의 기능을 작지만 단단한 공간에서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된 시기가
아직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독서실 기능 이상을 해내지 못할 때 그 빈 틈을 메워온 것이라는 점
에서 그 역할의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활동의 한계 또한 분명히 있다.

작은도서관 활동의 첫 번째 한계로는,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성과를 이뤄낸 도서관의 수가 전체
작은도서관의 수에 비해 여전히 소수라는 점과 작은도서관 공간의 소규모 성으로 인해 전국적 성
과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일부지역의 성과로 그친 점이다.

둘째, 작은도서관 활동의 성과가 사람의 성장, 독서문화의 전파, 공동체의 부활 등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그 성과를 가시화하고 전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각 지

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의 틀이 정량적인 평가에 국한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작은도서관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성과의 파급력이나 전파력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셋째, 시대적 변화이다. 독서인구가 감소하고 스마트폰이나 정보통신 기구에 대한 이용이 독서 활동을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개인화된 공간에 대한 갈망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요구보다 높은 시대에, 지금까지의 작은도서관 운영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더욱 개인화되고 도구화되면서 증가되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소외와 차별에 대한 접근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독서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여년의 시간을 깨어있는 시민들이 앞서서 놀라운 헌신성과 열의로 이룩해 온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우리사회의 독서생태계는 빛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각된 시민의식과 놀라운 헌신성과 사람에 대한 열정은, 앞으로 우리사회 독서문화의 역시 길지만 쉽지 않은 행로에 영원한 자양분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활동의 주요 성과가 현재의 정량적 평가도구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가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성적 평가 방식이 인력과 예산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는 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금씩 평가 항목을 개발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혹은 현재의 정량적 평가방식에 인력의 질적 측면 즉 직무만족도, 직무이해도 등을 추가하여 조금씩 보완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겠다.

둘째, 여전히 전국의 작은도서관들에는 유급의, 전문적인 상근 활동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원의 한 방안으로 지자체별 교육을 확산하고 지속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학교 등을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이며 사명감과 열의를 갖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육의 내용과 작은도서관 현장에서의 활동의 내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을 무조건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국한하기보다는 작은도서관 인력의 역량에 대한 도서관계의 논의를 통해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작은도서관 스스로도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 예전의 선배들이 갖고 있던 시대정신을 상기하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별로 상이한 목적과 방향, 성격들을 지니고 있지만 책 읽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을 지원하고 양산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는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공공의 독서문화 증진이라는 공공성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별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여타의 지역사회와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전국의 작은도서관 현장에서는 활동가들이 많은 고민을 안고 어려운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20년 이어온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활동의 성과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활력을 얻는데 많은 도서관계의 고민이 치열하게 이뤄지길 희망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의 성과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권소연·연지은. 2012.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동기요인 충족도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연구소 웹진 Vol> 89
- 김미숙. 2015. 「작은도서관 활동가의 사회적문화구성과 의미부여 -광주광역시 책돌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일·조미아·변현주. 2015.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 Vol 49
- 김선화. 2015. 「신문기사에서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역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희. 2008. 「작은도서관운동의 마을만들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8. 『참 좋은 엄마의 참 좋은 책 읽기』 서울; 기탄교육
- 김유미. 2017. 「평생교육관점에서 본 작은도서관 관장들의 전환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렬. 2011.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011.12, 51-67 (17 pages)
- 박소희. 2015.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운영개선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송이. 2010.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2012.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운영자의 인식변화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선. 2016. 「사서의 직무만족요인과 직무성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2014. 「작은도서관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경. 2011.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J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 2011.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직무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남. 1992. 「공공도서관 목적의 구조에 관한 연구 : 공공도서관 직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정보학회지』 22호
- 이현우·이미애. 2012. 「경기도도서관 전문 인력 운영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개발연구원
- 최규명. 2008.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문성·노영희·이근화·최만호. 2017. 「서울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비블리학회지』
- 허소희. 2017. 「공공도서관의 커뮤니티 거점연구 -맨발도서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